

Contents



issue

기획특집	아동성폭력 관련 정부대책의 맹점들	
	- 여는 말	2
	- 감시와 처벌의 강화,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법인가	3
	- '화학적 거세' 관련 미국과 유럽의 정책 동향정유석	9
	-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염려하는가?	12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2009년 한국,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불순한' 만남	16
성문화 읽기	플레이미가 어쩌다 만난 사람들: 꿀벅지, 루저녀, 똥꼬치마	18



survivor's voices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2
	감나무의 인사	
생존자 말하기	水的 이야기 - 연재 15th 수의 치유비법 2 '표출'	24



edutainment

물이야기	물, 의미의 불일치 (연재 3/3)	29
소모임 생각	상상력을 담은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 『공간, 육체, 권력』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	34



report & membership

똥대상담소	똥대상담소	36
사업 p/review	두잉 티셔츠 /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38
회원소식	회원인터뷰 / 후원 소식	40
	아낌없이 주는 나무	41

아동성폭력 관련 정부대책의 맹점들

◎ 나눔터 편집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발간된 나눔터 60호는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고, 우리 사회의 성별이중규범과 강간 문화에 대한 도전, '사법실패'에 처한 현실 진단 및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눔터는 1년 만에 다시 동일한 기획을 준비합니다.



올해 9월, 언론이 보도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아동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잔학성에 분노하였고, 정부의 아동성폭력 피해지원대책 및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 아동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정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들을 발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금번 또한 그러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은 언제나 사건 이후에 시급하게 마련되고, 공분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금세 잊혀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가해자의 강경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및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10% 미만이며 실제 처벌율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기준의 강화보다는 처벌범위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며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아동성폭력 관련 정부대책의 맹점들에 대한 글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 자문위원 이경환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의 엄벌주의 정책을 비판 및 제언하며 前 상근활동가이자 자문위원 정유석 님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관한 국의 동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운상 소장은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성문화를 성찰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해야 보다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대책과 제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나눔터와 함께 여전히 유효한 지난 60호 나눔터를 읽으며 나의 일상과 나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호 나눔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와 처벌의 강화,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법인가

◎ 변호사 / 본 상담소 정책 자문위원 이경환

1 성폭력 사건의 이슈화와 정부의 대책

최근 성폭력 관련 정책의 변화는 먼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이슈화되었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2007. 12.),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2008. 4.), 청주 지적장애아동 성폭력 사건(2008. 11.), 조두순 아동성폭력 사건(2009. 9.) 등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쏟아 내었다.

정부 및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처벌형량의 상향 조정, 유기징역 상한 폐지, 사회적 격리, 가석방 금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강화, 신상공개 확대, 흉악범 얼굴공개, DNA 정보수집 등 대체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로서는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폭발적인 여론의 반응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나 언론의 관심도에 있어 위와 같은 강력 대책들이 위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강력 대책들이 실제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원래 의도했던 효과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 것인지를 단순한 대립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동정 또는 분노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중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위 정책들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있다.

2 성폭력 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성폭력의 특성

1 성폭력에 대한 이중적 태도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가 공존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사건들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과 같은 취약한 피해자이거나, 제3자가 보기에 성폭력 가해사실이 명백하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극도의 엄벌주의가 적용된다. 최근 조두순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와 같이, 사형,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화학적 거세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쉽게 언급하지도 못할 강력한 대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성인이고 가해자와 밤늦게 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이지만 가출을 했고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을 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자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에 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일로 가해자의 인생을 망쳐야 하겠냐는 등의 가해자 옹호논리는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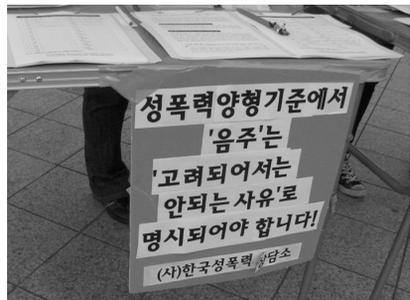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동일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양 극단의 반응이 모두 나타나는 점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정책 수립시에는 이러한 이중적 인식을 고려하고, 통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특정 사건들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더욱 고착화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를 동정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더욱 강화된 처벌을 염두에 두면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데 더욱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를 더욱 동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2~3 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즉, 최저 법정형이 징역 5년인데(작량감경하면 징역 2년 6월), 상당수의 법관들은 이 경우 행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음주감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죄에 있어 최협의설이 유지되는 근거 중에도 혐의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은 너무 과중하다는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강경 일변도의 강력한 성폭력 대책이 다른 성격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처벌의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편견과 통념에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강력 대책들보다 진술녹화제의 보완,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진술 제도, 형사사법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등과 같은 개선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낮은 신고율, 낮은 형량, 친고죄

강력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흉악범, 재범, 연쇄성폭행범, 잔혹한 범행수법의 범인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력 대책들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계적 정확성을 약간 포기하고 검토해보면,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가 어렵지만, 대체로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약 50%, 이 중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20%이다(친고죄에서의 합의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적용하여 보면, 전체 성폭력 사건의 1% 정도만이 강력 대책들의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도 2007

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아동성폭력 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하였으며, 42%는 벌금형, 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중형 선고를 기준으로 한 강력 대책의 한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친고죄를 고려하면 적용대상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이거나 강간상해, 특수강간 등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성인 또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 강간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수사·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력·흉악범죄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강력·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전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호도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위 통계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신고율인데, 신고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DNA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범인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게 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니다. 상당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을 신고할 경우 그로 인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스템 및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인식개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강력 대책들처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아는 사이에서의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의하면 성폭력은 평소에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가해자가 으스스한 밤에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에 끌고 가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의 83%(2006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 통계 집계 주체 및 시기에 따라 통계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모르는 관계에서의 성폭력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를 동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판례 분석에 의하면 친인척 관계를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형 비율과 형량 모두 낮아지는 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거나, 일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친족간 성폭력의 경우였다.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그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의심받거나 가해자가 동정받는 '가벼운' 사건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언론과 여론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건들을 성폭력의 전형적인 모델로 상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실제 성폭력의 발생 실태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DNA정보 수집과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정책들은 통념에 부합하는 으스스한 밤 골목에서의 괴한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성폭력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검토

1 흉악범 얼굴공개와 신상공개 제도의 확대

흉악범 얼굴공개 논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연쇄살인사건인 일명 '강호순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조두순 아동성폭력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다. 흉악범 얼굴공개는 '흉악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가해자 개인의 인권 등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많음에도 '가해자의 인권 v.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단순 대립구도 속에서 반대의견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감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헌법상의 원칙들과 인권의 원칙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존재하며, 정책입안자로서는 여론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흉악범 얼굴공개 경우 정부와 언론이 여론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이미 제도도입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단까지 받은 제도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논의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복감정에 기초한 처벌적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점이 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신상공개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개된 신상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이 있었던 안양시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

는데,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CCTV 설치, 놀이터 안전지킴이 제도, 귀가도우미 제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제도 등과 같은 노력들이 그러하다. 인터넷 신상공개 역시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성폭력 예방에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전자발찌 강화와 DNA 정보수집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2007. 4.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도입되었다가 2009. 5.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까지 범위를 넓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특정 이슈의 사건으로 인해 채택된 제도가 얼마나 쉽게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따라서 제도도입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다는 주된 근거 아래 채택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율 및 실행 신고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전자발찌를 도입하기 이전에, 가해자 교육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기존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권리를 더 적게 제한하면서도 가해자를 교화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도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 제도와 같이 감시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더욱 더 확대되거나 감시의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돌이켜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DNA 정보수집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DNA 정보를 수집하면 분명 특정 사건들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그 편의성으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점점 무시되고 다른 영역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가 특정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 또는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3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2008년에 이미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던 중에,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 제도는 그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결국 가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치료 목적의 보조적 수단일 뿐인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흉악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단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점도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법률안에 의하면 화학적 거세를 할 경우 조기에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성폭력의 경우 가석방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과 당장 모순되는 내용으로, 아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2008년 치료감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입된 치료감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그러나 가해자의 권리 침해 정도는 더욱 큰 화학적 거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를 먼저 시도해보고,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는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4 사회적 격리와 가석방 금지

이명박 대통령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조두순은 곧바로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용되었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사회적 격리'를 언급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여론의 비판에 따라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양형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형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지점은 실행과 집행유예의 판단기준이다. 상당수의 사건이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실행 여부는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피해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다니던 학교 또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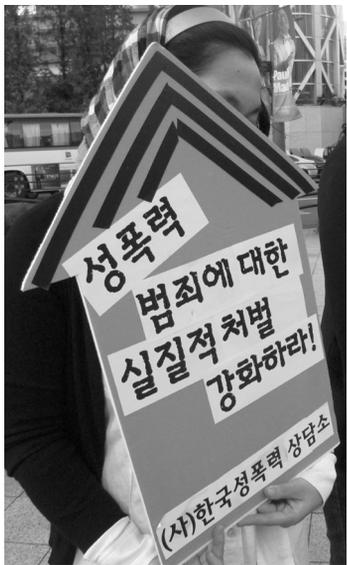
발생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격리'와 같은 자극적인 주문보다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집행유예 기준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여전히 재판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석방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접근 역시 무조건적인 가석방 금지와 같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가석방 또는 형기 만료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이에 대한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가해자의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4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대책을 기대하며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롭고 강력한 대책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하고, 여론에 편승하여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정책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책들은 외면하고, 여론의 입맛에 맞는 강력한 정책들만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기 이전에, 현행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개선하여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약속했던 각종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아동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고 한다. 삭감된 예산들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예산, 성범죄자 치료 재활 예산, 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예산 등이다. 여론의 입맛에 부응하는 말뿐인 대책보다, 진정성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지점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재검토,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정지 제도, 친고죄 폐지, 형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관련법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구축,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치료 시스템의 개발, 형사사법관계자 및 정책담당자들의 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등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지속적인 노력 및 관심이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검증되지도 않은 자극적인 정책들을 상품판매를 하듯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국내의 '화학적 거세' 논의는 몇몇 성폭력사건이 이슈가 되는 경우 일부의견으로 간간히 거론되어오다 2008년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재범예방과 가해자 치료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거론된 '화학적 거세안'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고 분분한데, 10여년전 유사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도 법안 취지(처벌/치료)에 대한 상반된 진단, 성폭력 관련 통념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우려, 가해자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 등 이를 둘러싼 목소리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

화학적 거세와 '약물 치료'

가해자에 대한 약물요법이 일반적으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것에 대해 한편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사실과는 달리 매우 강제적 처벌의 느낌을 주므로 '화학적 치료(chemical treatment)', '약물치료' 혹은 '항남성호르몬 약물치료(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라는 용어 등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소위 '화학적 거세'가 대부분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 물리적 거세와 달리 약물중단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입법 취지 역시 가해자에 대한 종래의 인지행동요법,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에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용어자체가 대중의 분노와 보복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실제로는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 약물에 의한 부작용● 자체가 처벌의 성격을 띤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가해자의 고통을 부각하고 법안의 실질적 처벌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는 체중증가, 자살성향을 포함한 우울증, 호흡근관 등(harrison, 2007), 혈전정맥염, 폐색전증(Bradford, 1983), 고혈당증, 고혈압, 당뇨(Spalding, 1998), 골다공증(Grasswick, 2003) 등이 보고되고 있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음.

미국의 관련 정책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외과적 고환절제술이나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요법(MPA)●● 방안을 도입한 이래, 2009년 현재 미국 내 9개 주에서 성폭력 범죄 확정 판결 후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이 고려되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에 따라 화학적 요법(조지아, 몬태나, 오레곤, 위스콘신)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의 조건부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텍사스의 경우는 약물요법의 선택지 없이 물리적 고환절제술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술 여부가 가석방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범죄유형, 자발적/강제적 집행여부, 불응시 조치 등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 현대의 관련 정책 이외에, 역사적으로는 성충동을 없애기 위한 물리적 거세가 19세기 미국(인디애나)에서 죄수들 대상으로 다수 시행된 바 있고, 1940년대 들어서는 가해자의 남성호르몬 약화의 목적으로 약물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각 주별 현황

■ Scott and Holmberg(2003), Norman-Eady(2006) 인용, 계구성

주	범죄유형	피해자 연령	치료방법	집행의 강제력 여부	적합성 평가여부 (의료적, 정신과적)	소요비용 책임	불응시 결과	비고
캘리포니아	남성 간 성교(를 돕거나 교사한자), 위력과 협박을 수반한 음란하고 선정적 행동, 구강 성교(를 돕거나 교사한자), 이물질(을 이용한 삽입)	<13세	화학적/물리적(자발적)	임의(초범)/강제(재범)	×	주당국	N/A	교정당국은 석방 일주일 전에 사죄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치료
플로리다	성적 폭행	제한 없음	화학적/물리적(자발적)	임의(초범)/강제(재범)	○	주당국	2급 범죄에 해당 (15년 징역, 1만불 벌금)	화학적 치료 명령이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처벌을 대체하거나 감경하지는 않음 가해자 석방 1주일 전 치료 시작
조지아	아동 성추행, 가중된 아동 성추행(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상처를 주거나 남성 간 성교의 경우 포함)	<17세	화학적	임의(아동성추행 가중범죄 초범)/임의(아동성추행 재범)	○	가해자 (상당비용, 약물비용은 책임 불분명)	N/A	부작용 사전고지하고 가해자의 서면동의의 필요 가해자 석방 전에 시작해서 법원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음을 증명할 때까지 지속
아이오와	성학대, 고의 폭행, 음란한 접촉, 선정적 행동, 보호감 독자에 의한 착취, 미성년의 성적 착취	<13세		임의(“심각한 성 폭력” 초범)/강제(화학적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범)	○	가해자	N/A	“합리적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해자가 지불
루이지애나	중(重)간강, 단순간강, 성폭행, 가중성폭행, 구강성교, 가중된 형태의 구강성교, 근친간강, 비정상적이지만 가중된 범죄	<13세/ 모든 연령 대상의 재범	화학적/물리적(자발적)	강제(정신건강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	가해자 (평가, 치료계획, 치료과정 소요비용)	가석방, 집행유예 등 철회, 감형된 형기에 대한 벌금 부과	가석방, 보호관찰 등의 대상자가 되기 전 정신건강 평가 시행 석방 6주 전에 시작
몬태나	성폭행, 동의 없는 삽입행위, 근친간강	<16세(초범)/ 모든 연령 대상(재범)	화학적	임의(피해자가 16세 이하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3세 이상 연장자일 경우 초범)/임의(재범)	×	주당국	법정모독에 해당하며 10년에서 100년의 징역형	가해자 중 치료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선택가능 치료는 석방 일주일 전에 시작·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 필요
오레곤	교정당국은 매해 가석방 대상자나 출소 후 보호관찰 중인 40-50명의 가해자 대상의 시범 치료 프로그램 시행	모든 연령	화학적	강제(의학적 문제가 없고 치료가 적합한 모든 가해자 대상)	○	가해자 (모든 재범비용)	위반 시 법적 제재	교정당국은 가석방 6개월 전 치료적합성 여부를 사전평가하고 해당자를 의료진에게 의뢰함 치료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거나, 치료에 반하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함
텍사스	아동대상의 음란한 언동, 성폭행, 가중 성폭행	<17세/ <14세 (가중성폭행)	물리적	자발적	○	주당국	N/A	교환질제술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의 조건부가 될 수는 없으며 당국에서도 가해자의 수술 결심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됨 수술 전 언제든지 결정을 바꿀 수 있지만, 반복 후 다시 신청할 수는 없음
위스콘신	아동 성폭행, 아동대상 2급 성폭행	<13세/ 13-15 (2급성폭행)	화학적	임의	불명확	N/A	N/A	치료를 거부한 가해자의 경우 교정당국에서는 석방을 거부할 수 있음

유럽의 관련 동향

유럽에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가해자 ‘치료’ 수단으로써의 교환질제술은 19세기 후반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penter 1998) 이후 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등지에서 대부분 가해자의 동의에 따른 외과적 거세방안이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규모로만 시행되고 있다.(Harrison 2007) 체코의 경우는 최근까지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해 유럽연합의 고문방지위원회(2009)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치료가 아닌 ‘회복불가능한, 신체를 훼손하는’ 조치로 보고 체코 정부에 관련조치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화학적 요법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화학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Koller, 2008) 영국(잉글랜드, 웨일즈)의 경우 1970년대 중후반 시행되었다가 일부 부작용으로 중단되었고, 80년대 들어서는 런던의 병원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Harrison 2007), 이후 2007년 영국 내무부에서는 ‘재범에 영향을 줄 정신건강상의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충동, 새디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정, 보호관찰 관련인의 위탁과 가해자의 자발적 선택하에 다양한 수위의(남성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물요법을 포함) 화학요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식 발표하였다.(NOMS-영국 가해자 관리감독부, 2007)

이밖에도 캐나다 역시 가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화학적 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에서도 아동 성폭력가해자들이 ‘화학적 거세’에 동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지난 9월 폴란드에서는 아동성폭력가해자의 ‘화학적 거세’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관련 쟁점들

찬반 그룹 모두에 의해 문제제기 되는 화학요법의 실질적 효과성 이외에, 가해자 인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협약과 국제관습법, 각국의 헌법 등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동의 없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관한 권리-성적권리, 심리적, 신체적 통합성을 유지할 권리-, 결혼과 가족을 형성할 권리-재생산권-등의 과도한 침해여부, 절차적 정당성과 이중처벌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Scott and Holmberg 2003, Ward and Cannon 2007) 법안에 따라 법원이 ‘물리적, 화학적 거세’를 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조항이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과도한지, 이러한 조치가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인지,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가해자의 자발적 선택과 동의에 의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의한 것인지,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등의 조건 부로서의 동의가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등이 질문된다.

가해자 인권 관련 논의 이외에, 한편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사회전반의 공포와 분노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관리를 강조하는 정부의 규제적 경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약물치료 명령이 범행동기가 소위 ‘성적이기만 한’ 소수 범죄 이외에, 폭력과 증오, 권력의 남용이 원인이 되는 다수 성폭력범죄를 ‘치료’할 수 있는지(Spalding, 1998),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의 문제로 보게 하는 등 성폭력 이슈를 더욱 비정치화, 병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주요하게 질문한다.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염려하는가?

◎ 소장 이윤상

『 조OO 사건에 우리들은 분노했다. 지난 해 있었던 혜진·예슬 사건, 그 전의 용산 어린이 성폭력 피해 사건 등이 떠오르면서, 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어리고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 희생되어야 하는지, 화내고 걱정되는 마음 이루 다 말할 길이 없다. 』

정책자료가 될 수 있는 통계 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 합동 대책 회의가 열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종합대책 마련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에 참여한 각 부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에 내놓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대책들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고 지원하면서 체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많다. 아동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신고율),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다는 수치 등은 신고율이 10% 미만인 사회*, 아동성폭력의 45% 정도가 친인척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과 어떻게 조우하는 걸까? 그나마 신고되는 피해는 주로 비면식범에 의한 것이지만, 친족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계속 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필요한 지원책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

● 2007년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피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율은 공식범죄 통계의 168배인, 가장 신고율이 높은 강간, 강간미수 피해자의 신고율도 7.1%임.

●● 200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_연령별로 본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관계

피해/가해자 연령	친족 (법률상)	친족 외인척	기타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서비스 제공자	소개, 채팅	학교, 학원	인터넷	주변인의 지인	직장내	친밀한 관계	총합계
미상	4	-	2	-	3	3	1	-	-	-	2	1	2	18
성인	12 (1.3)	7 (0.8)	83 (9.0)	19 (2.1)	93 (10.)	43 (4.6)	41 (4.4)	13 (1.4)	65 (7.0)	32 (3.5)	47 (5.1)	351 (37.9)	110 (11.9)	926 (100)
유아· 어린이	110 (44.2)	8 (3.2)	11 (4.4)	27 (10.8)	24 (9.6)	6 (2.4)	1 (0.4)	-	49 (19.7)	1 (0.4)	11 (4.4)	-	1 (0.4)	249 (100)
청소년	47 (19.8)	5 (2.1)	13 (5.5)	8 (3.4)	37 (15.6)	13 (5.5)	8 (3.4)	1 (0.4)	54 (22.8)	14 (5.9)	13 (5.5)	9 (3.8)	15 (6.3)	237 (100)
총합계	183 (12.8)	20 (1.4)	109 (7.6)	54 (3.8)	157 (11.0)	65 (4.6)	51 (3.6)	14 (1.0)	169 (11.8)	47 (3.3)	73 (5.1)	361 (25.2)	128 (9.0)	1430 (100)

※ 연령은 피해시 연령에 따른 분류이며 장기간 지속된 피해의 경우 피해 시작 시기를 기점으로 함

피해를 보고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보고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제 아무리 많은 지원책이 있다한들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 일은 처벌과 지원, 양 측에서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아동성폭력피해를 고소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해본 부모들 중에는 고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고해서 경·검찰 조사 힘들게 받았더니 결국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무혐의 처리하여 재판 한 번 열어보지도 못하는 사건이 술하게 많고, 어렵게 기소되어도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는 아동성폭력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 올바른 조사방법, 과학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를 아동성폭력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힘들고 고된 형사사법절차를 다 거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절차에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진술녹화제도가 법률에 명문화된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몇 번씩 반복되는 진술에 고생해야 하는 어린이, 경찰이 잃어버린 진술녹화 테이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피해자, 성폭력전담수사반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인지 죄인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주눅 들고 눈치 보아야 하는 신세라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권이나 정보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여러 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형사절차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개선할 기회도 부여 받지 못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정도의 신분으로만 공판에 참석하고, 수사력이나 증거증명력의 미비로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고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근절이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어야 하듯,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를 보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대책

14년 전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 채택되었다.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충분히 고지 받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 공감과 존중으로 대우, 타당한 조치와 고통 경감을 위한 방안을 법률로써 보장
- 고통 경감을 위한 사법적·행정적 조치 마련,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는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피해자의 견해와 입장 포용 | 법적 절차를 통한 조력 | 피해자 사생활 보호, 불명함 최소화,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 사건처리 지연 방지책이 포함 되어야 함
-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기제(조정, 조정 등) 마련
- 가해자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실 보상, 피해 때문에 발생한 비용 상환, 서비스 비용, 권리 회복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명령 제도 마련
-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에는 환경복구, 인프라 복구, 공공기를 수선 비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공무수행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
- 가해자가 보상을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 필요
-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피해자는 물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보장
- 경찰, 사법부, 공중보건, 사회 서비스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함
- 서비스와 조력 제공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는 것이 유엔 선언문에 명문화된 지 십수 년이지만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오늘도 2차 피해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요구 때문에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견뎌야 한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상의 조치에 대한 요구는 현재로서는 사치에 불과하다.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많이 지원해본 경험 있는 일선 상담소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나마 약간의 심리적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 각 상담소의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원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선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국가의 예산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후원금과 재능기부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얻어내지 않는 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11월 2일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에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형사소송법상 집행되는 벌금 수납액의 5%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안이 통과되면 연간 750억 규모의 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다.

유엔 선언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물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며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감수성을 가진 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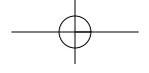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것일까? 피해 때문에 발생한 비용(장단기 의료비용, 심리적 치유에 필요한 비용, 경제력 상실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비용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피해회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의심받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의심하고 낙인찍는 사회라면 피해자가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자체,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그저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누가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낙인과 싸우는 것이 피해자 지원책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모든 지원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피해자가 편견과 정면으로 싸우든, 편견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든 바로 그 상황을 지원하고 차별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선택한 치유의 과정이 진정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 내어 치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개인이 당한 불의의 사고정도로 인식하고,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생색내기 정책으로는 피해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인권감수성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관련 관계부처 대책 중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
- 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확대 추진
-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설치(전문화된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아동성폭력 진술편역전문가 양성)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통신수단 접근금지)
- 피해아동 대상 드림스타트 서비스 우선 제공(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성학대 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 설치
- 아동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지원 확대(의료비 지원 확대 등)

위 내용은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중 요지를 발췌한 것임



폴페미가 어찌다 만난 사람들 꿀벅지, 루저녀, 똥꼬치마



(go fish) by Luca Donnini

◎ 당고

얼마 전 모 여가수의 탄탄한 허벅지를 지칭한 '꿀벅지'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등장, 성희롱이나 아니냐 하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꿀벅지는 성희롱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고 여성부에 청원한 고등학생이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녀들의 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대생은 "키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을 하여 남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본인은 물론 재학 중인 대학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 등 큰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시사 잡지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가리는 거냐? 봐달라고 표시하는 거냐? 착하게 입었으면 행동도 착해야지"라는 내용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똥꼬치마'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가상의 인물을 섭외하여 솔직담백한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 관련 용어를 대담자의 가명으로 지정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꿀벅지 길고 탄탄한 허벅지로 못 남성들에게 꿀벅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루저녀 남자의 키는 경쟁력이며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똥꼬치마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조신하게 핸드백으로 치마 뒤를 가린다.

폴페미 꿀벅지, 루저녀, 똥꼬치마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한 열혈 페미니스트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

꿀벅지 요즘 대세가 꿀벅지잖아. 예전엔 무조건 마른 여자만 선호했는데, 드디어 나의 길고 탄탄한 허벅지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주변 남자들이 내 허벅지를 보고 모두 입을 모아 꿀벅지라고 찬양을 하더라.

똥꼬치마 난 최근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모 시사 잡지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똥꼬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치마 뒤는 왜 핸드백으로 가리느냐, 뒤에 있는 남성으로서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것 같

아 기분이 나쁘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거든. 거기다가 '착하게 입었으면 행동도 착하게 하라'는 식의 여성비하적인 발언에 몹시 속이 상했어.

루저녀 아무래도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건 나일 것 같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인터넷에서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재학 중인 대학의 홈페이지까지 네티즌의 공격을 받았어. 온갖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고 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씩지는 칭찬일까? 아니면 성희롱일까?

폴페미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쉽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꿀벅지라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여성들도 많아. 꿀벅지의 어원이 '꿀리는 허벅지'라는 걸 알아? 결국 꿀벅지는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말이라고. 루저녀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여자들은 항상 50kg가 넘으면 여자도 아니라는 둥, 못생긴 얼굴이 곧 무기라는 둥 외모에 대한 갖은 비하와 말도 안 되는 편견을 짊어지고 살아왔어. 남성은 여성을 그토록 쉽게 평가하는데, 여성이 남성을 평가하니까 대번에 난리가 나잖아.

꿀벅지 솔직히 폴페미의 말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꿀벅지라는 말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칭찬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 성희롱이나 성차별 같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건 과장이 아닐까? 여자들이야말로 초콜릿 복근이니 짐승들이니 하면서 남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있지 않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남자들 여자들 자신의 성적 쾌락을 마음껏 표출하고 더 좋은 상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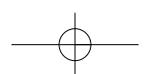
로 인정받기 위해 몸을 가꾸는 시대야. 그걸 남녀 성대 결로 몰아가는 건 좀 촌스럽지 않아?

폴페미 그래, 꿀벅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많은 남성들이 '여자들이도 초콜릿 복근을 보고 좋아하지 않냐'면서 몰타기를 시도했지. 하지만 초콜릿 복근과 꿀벅지가 똑같다고 믿는 건 우리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나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여성이 남성의 초콜릿 복근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남성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꿀벅지를 보고 흥분한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곧바로 성폭력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출발선이 전혀 다른데 자꾸 똑같다고 우기면 몰타기 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초콜릿 복근을 보고 흥분하는 여성과 꿀벅지를 성희롱이라고 문제제기한 여성이 과연 같은 부류일까? 누구보다도 성적 대상화에 민감한 페미니스트들이 함부로 타인의 몸을 파편화하고 대상화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일락 말락 똥꼬치마, 가려야 해? 말아야 해?

똥꼬치마 나도 폴페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 문제의 기자처럼 자칭 '좌파 언론인'으로 이름난 사람도 젠더 문제로 넘어오면 곧잘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잖아. 꿀벅지라고 부르면서 침 흘리는 거랑 착한 몸매를 왜 가리냐고 빈정거리는 거랑 뭐가 달라? 자기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잠재적 가해자가 뜨끔해서 화내는 걸로밖에 안 들려.

폴페미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인데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지 말라고 화를 내는 건 진짜 넌센스야. 여성은 당연하게도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데 말이지. 애당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뒤를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뭘겠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아래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다리를 흘끔거리는 남성들 때문이잖아. 안 가리면 조신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가리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이걸 명백히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라고 봐.

꿀벅지 그렇게 보이는 게 싫으면 처음부터 짧은 치마를 입지 않으면 되잖아. 기를 쓰고 가리면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심리는 좀 모순되지 않나?

풍꼬치마 짧은 치마를 입는 이유가 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잖아. 자기만족이라는 말도 모르니?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잖아. 그게 꼭 남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꿀페미 잠깐, 난 꿀벅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여성들이 정말로 자기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는 걸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그래도 자기만족을 위해 치장을 할까? 평생 방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라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으려 들지도 않을 거야. 차라리 맛있는 걸 배달시켜서 먹으면 먹었지, 과연 굶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할까? 혼자서 거울을 보고 만족한다는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도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잖아. 짧은 치마도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고, 여성이 진정으로 자기만족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는지는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풍꼬치마 그럼 꿀페미는 절대로 짧은 치마 따위는 안 입고 노상 바지만 입고 다니니? 화장도 안 하고? 살이 찌서 통통해져도 다이어트 안 한단 말이지?

꿀페미페미니스트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냐. 나도 가끔 다이어트의 유희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짧은 치마를 입기도 해. 다만 내 행동의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성찰하려고 노력하지.

남성에게 돌아간 자본주의와 외모지상주의 부메랑

풍꼬치마 근데 루저녀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루저녀의 발언 때문에 키 작은 남자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가지지 않은 여자들까지 욕을 먹고 있잖아.

루저녀 솔직히 나도 억울한 감이 있어. 키가 큰 남자가 좋다,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 결혼할 남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 남자들 스스로도 늘 자기들끼리 '루저놀이' 같은 걸 하고 있고 말이야.

꿀벅지 루저녀는 정말 돈, 외모, 학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 꿀페미는 입버릇처럼 항상 여성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럼 루저녀 같은 여성과도 정말 연대할 수 있어?

꿀페미 물론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과 연대를 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연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루저녀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의도를 봐. 처음부터 남성에게 성적으로 가장 쉽게 어필하는 '외국 여성', '미녀'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어졌어.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 외모지상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남성들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장소에서 여대생인 루저녀가 남성의 외모를 평가했어. 남성들은 이것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남성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미녀를 선발하고 앉혀놓고 보면서 즐길 수 있지만, 여성은 남성을 평가하고 선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사건은 남성들이 극단으로 부추긴 외모지상주의가 그들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간 것에 불과해.

루저녀 꿀페미가 말 한번 잘하네. 맞아, 남성들도 항상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여성이 남성을 키나 연봉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건 불평등한 것 같아.

꿀페미 남성 중심적인 환상이 재현되는 공간에 나가서 남성들이 욕하고 싶은 여성을 연기한 루저녀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야. 남자들은 '예쁘고 머리 빈 여자' 라는 극단적 여성상을 만들어놓고 그 여성을 짝사랑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돈만 밝히고 머리는 빈 속물이라고 욕하는 거야. 그들이 만든 환상의 한 축을 외국 미녀들이 담당한다면,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루저녀야. 다양한 여성들을 동질화하고 남성 중심성에 기대어 '만들어진 현실'에 일조했으니,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던어놓고 한 놈만 패는 중세적인 마녀사냥은 정말 그만~

루저녀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해도 싸다는 거야?

꿀페미 그건 절대 아니지. 루저녀와 얽힌 논란은 남성 중심적 사회와 그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제작진이 만든 건데, 여성 개인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삼는 광폭한 움직임은 당장 중지해야지. 이번 루저녀 사건을 통해 여성이 얼마나 마녀로 몰리기 쉬운 존재인지, 남성 사회가 여성을 매장하는 것이 얼마나 간편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 지금 세상은 탈근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마녀사냥' 이야. 꿀벅지에 대해 문제제기한 여성 블로거의 개인정보를 캔다든지, 루저녀의 신상을 캔다든지, 소송을 걸어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코 발전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야. 젠더 불평등, 외모지상주의, 자본주의로 격화된 물질중심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를 성찰하고 서로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루저녀에게 가해지는 마녀사냥은 그냥 한 개인을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자세에 불과해.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은 여자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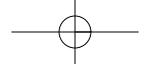
꿀벅지 지금 시대는 윤리보다 욕망이 우선하는 시대인 것 같아. 너희는 초콜릿 복근, 우리는 꿀벅지처럼 1:1로 욕망을 주고받는 식의 공방은 계속되지 않을까.

풍꼬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뒤를 가리느니 안 가리느니 하는 문제에까지 신경을 쓰고 살자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여자로 산다는 게 참 피곤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과연 나의 자유의지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것어.

루저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마녀사냥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지. 속물적으로 웃고 즐기자는 오락 프로그램도 누구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구나 싶고, 세상이 무섭고 만사가 피곤해.

꿀페미 여성에게만 쉽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요즘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 요원한 것만 같아.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가고 싶어.





Diary 열림터 다이어리



한동안 공사 먼지에 시달린 탓에, 한동안 삼겹살을 자주 먹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여성재단의 도움으로 태평양 <Happy Bath, Happy smile> 지원을 받아
 늘 분쟁의 씨앗이었던 화장실을 깨끗하게 공사하게 되었거든요.
 화장실은 늘 말이 많은 곳입니다. 머리카락 치우기, 휴지통 관리,
 세탁기 돌리면 바닥에 물이 한가득, 변기에 물이 튀어서 잠결에 앉으면 비명 소리 가득.
 이젠 가족회의 때 화장실 얘기만 나오면 지켜보는 사람이 더 지겹다 싶을 만큼 늘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공사 이후에는 아직 잠잠합니다만, 언제 또 시작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 화장실 공사



이와 함께 이사는 가지 못했지만, 공사 기간에 거실 리모델링과 앞마당의 감나무를 정리했습니다. 온갖 살림에 어수선했던 거실은 깔끔한 공간이 되었고, 관리를 잘 못해 막 자리던 감나무는 아쉽게도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벌레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수시로 떨어지는 감 때문에 친구들이 종종 미끄러지고 청소에도 크게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공사를 새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뿐 아니라, 힘들게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니 그 수고로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을 거라 믿어 봅니다.

감나무의 인사

◎ 감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열림터 모퉁이에 서 있던 감나무예요.
 이 자리에 무척 오래 살았지만,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다니, 기분이 남 다릅니다.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대추나무, 모과나무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흐



못하기도 하고요. 나는 열림터 식구들이 여기 오기 한참 전부터 이 자리에 서서 동네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기 위해 햇빛과 땅의 기운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해마다 맺는 열매들은 모두 달라요. 잘 익고, 많이 열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있어요. 이 집에 열림터 식구들이 온 이후로는 잘 관리해주지 않아, 혼자 노력을 많이 해야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나무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줄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싶어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지금껏 나는 길 밖 소식보다 담장 안 소식에 더 밝은 나무가 되었지요.

그동안 쪽 지켜보니 이 집은 식구들이 참 많아요. 게다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 살림을 들여다보기로 작정한 그날에

'고 녀석 참 이쁘다' 싶었던 녀석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 보이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어느새 개구쟁이 같은 녀석이 새로 보이기도 하고 말이예요. 그러니 조용할 날이 없는 집안인 것이지요. 이 집이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 대문 소리만 들어도 금세 알게 되어요. 아침 시간에는 줄줄이 뛰어서 문을 쾅쾅 닫고 나가고, 버스 카드 때문에 다시 후다닥 뛰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여기 선생님들 하고 싸우는지 울면서 현관문 쾅,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서 현관문 쾅. 어떨 때는 내 몸이 다 아플 정도예요. 이렇게 식구가 많고 시끄러우니, 나 같은 나무에게는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이젠 다 이해가 되어요, 오히려 돕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해 뜨기도 전에 보따리 싸서 나가던 애들을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손발이 있었으면 붙들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럴 땐 참 나무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고작 할 수 있는 건 익지 않은 감 몇 개 날려 선생님 방 가까이 던지는 것 뿐이었거든요. 신기하게도 내 노력 덕분에 일어나시는 것도 몇 번 보았어요.

이렇게 떠올리니 참 기억이 많네요. 내가 좋아하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청소시간이에요. 여기 식구들이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좋은 관심은 아니예요. 나뭇잎들, 익은 감, 익지 않은 감이 바닥에 쌓이면 아이들에게는 모두 불만거리예요. 특히 열매가 잘 익어 떨어질 때는, 차마 귀를 열고 있지 못할 정도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고 훌륭한 일인데도, 나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은 화가 나서 일부러 참았다가 물청소가 끝나면 잘 익은 감을 떨어트리기도 했지요.

자잘한 추억들이 많은데, 참 아쉬워요. 그리고 보니, 올해는 유독 열매 맺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키에도 긴 막대기에 의지해서 잘 따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맛있게 먹던 얼굴들이 예뻐는데, 올해는 많이 주지는 못했네요. 이번 기회에 잘 쉬고, 조금씩 더 커질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다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열림터 생각 - 열림터 다이어리 / 감나무의 인사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회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ivr@chol.com 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가 열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재 15th

수의치유방법 2 '水'

◎ 水

욕하기

씨발, 개새끼, 어디 가서는 짹소리도 못하는 게 또 지랄이야, 개새끼, 개새끼야, 저걸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려야지, 병신 같은 새끼, 너 나중에 늙으면 개새끼야 구박하고, 막 팸 거야 이 새끼야. 지랄, 지랄, 에에에에에에에 하나도 안 들리거든, 병신 새끼야, 나중에 두고 보자 병신 새끼, 니가 무슨 아빠냐 개새끼야.....

그 새끼한테 맞고, 당하고 나면 내가 쓰는 글씨들을 볼 수도 없는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서 갈겨 썼다. 곧 잘게 찢어 연탄불에 넣어 태우거나 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다.

나의 욕하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새끼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입술을 떨썬이며 욕을 했다.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종이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시원한 느낌과 힘이 느껴졌다. 욕을 하다 입술을 딱 악물었을 때 나의 분노가 힘으로 느껴지는 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새끼가 오빠의 배를 주먹으로 쳐서 오빠가 숨을 '썩썩' 대고 있는 상황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주먹이 꼭 쥐어졌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아빠란 새끼를 주먹으로 막 때고 있었다.

'병신 새끼, 밖에 나가서 다른 아저씨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새끼가 집에서 어린 자식들, 아픈 엄마만 때고 지랄이야, 병신아 너 진짜 웃긴 새끼거든.'

욕하기는 단순히 분노를 뽐어내는 것뿐 아니라 내 속의 힘을 키워주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나는 욕을 하면서 점점 그 새끼에 대해 속으나마 막말을 할 수 있었고, 패줄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다.

며칠 전에 아빠란 새끼한테 전화를 했다. 작년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이후 화가 나면 종종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습관이 생겼다.

"아가, 왜?"
"지랄한다, 그렇게 부르고 싶냐?"
"너 자꾸 왜 그래? 어디야? 술 마셨냐?"
"병신, 아주 지랄을 한다. (비웃음을 적절히 날려준 후) 나 잘 살고 있어 개새끼야. 너는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개새끼야, 진짜 괜찮은 애 만났거든. 근데 내가 부모가 제대로 없다고 개네 부모가 결혼 반대한다, 개새끼, 너 때문이야"

"야, 아가, 왜 그러냐? 너 개가 너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벼~~잉~신 새끼, 그렇게 말하면 좋냐?"

"너 왜 그러냐? 아가, 지금은 아무튼 전화 끊는 게 좋겠다. 뚝"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지가 뭘데 전화를 먼저 끊어"

이상했다. 몇 년 만에 내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난 후 몇 번 전화해서 욕을 했는데 속이 참 후련하다. 내 속에 쌓인 쓰레기 같은 감정을 버려야할 곳에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도 잘 내고, 신경질적이라는 평을 자주 듣곤 했는데 그들에게 가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내게 쌓이게 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싶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괴롭힐까봐 겁도 살짝 났다.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특히 그랬다. 처음 전화했을 때, 내 목소리는 떨지 않았지만 전화를 들고 있는 내 손과 다리는 살짝 떨기까지 했다. 그런데 몇 번 전화를 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겁 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에게 할 욕들을 종이에 글쓰거나 입속말, 머리 속 말이 아닌 소리 내어 하기 시작하니 또 다른 경지의 욕하기에 이른 듯 했다.

그 사람의 귀에 직접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열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어린 시절 막강한 힘으로 나를 마구 대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하고(나는 이 욕을 할 때마다 개한테 미안하지만 달리 무슨 욕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화가 났거든' 을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지금이 참 좋다. 야, 김재섭 개새끼야!(꼭 실명으로 올려보고 싶었다)

나는' 쉽사리 용서를 말하고 싶지 않다. 욕할 만큼하고, 미워할 만큼 미워하고, 죽이고 싶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죽이고, 또 죽이면서 내 속이 풀릴 때까지 원도 없이 욕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설픈게 미워하고, 대충 욕하지 말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 실어서 더 이상 미워할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미워하라. 욕하고, 욕하다 더 이상 어떻게 욕해야할지 이 세상에서 나쁜 표현들은 다 써버려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욕하라.

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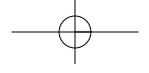
지하철을 타러 사당역에 서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진한 화장을 한 내 친구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건넨다.

"야, 너 어디 룬싸롱 다니냐? 어디에 있냐고, 한번 가줄게"

"하지 마세요"

겁에 질린 친구 대신 내가 한마디 했다.

"아니 어느 룬싸롱에 다니냐고? 내가 한번 가준다고"



“야, 그만 하겠지? 너 성추행으로 경찰서 한번 가볼래?”

나는 겁나서 대꾸도 못하는 친구 대신 말까지 터가며 취한 아저씨에게 따졌다.

“니가 왜 그래? 애한테 말하는데?”

“야, 애가 룸싸롱에서 일하는 애도 아니고, 니가 뭔데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해? 야, 따라와”

근데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순순히 내 뒤를 따라왔다. 속으로는 ‘짜식 따라오란다고 따라오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갈 것이지’ 그러나 시작한 이상 그만둘 수는 없었다. 친구는 옆에서 그냥 가자고 했지만 나는 어느 새 등근 기둥에 붙어있는 ‘지하철 수사대’ 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기요,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요, 여기 000로 와주세요.”

취한 아저씨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난리다.

“야, 앉아서 싸, 조금 있으면 경찰 오니까.”

이상하게도 그 술 취한 아저씨는 말을 잘 들었다.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다.

조금 있으니 경찰이 왔다.

“어디 만졌나요? 어떤 성추행인가요?”

나는 술 취한 아저씨가 했던 말과 정황을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경찰은 대뜸,

“그러니까 어디를 만진 건 아니네요?”

“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건 그냥 넘기면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 그럼 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죠.”

그 사람을 끌고 작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강력반 형사가 술 취한 아저씨를 조사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형사는 나에게 ‘좋은 사건’ 있으면 자기에게 연결해달라며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원을 다니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명함이 있었던 덕을 톡톡히 봤던 것 같다. 우리는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 사람 그냥 안 넘어간다고 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도 왔다. 그 사람은 조그만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사과 전화를 하고 나서야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다.

사실 나도 안다. 그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람은 술 취한 것을 핑계로 젊은 여성들에게 그만 식으로 말하거나 더 심한 날은 성추행도 했을 수도 있다. 그러고도 귀찮아서, 두려워서 피해버리는 여자들만 만나왔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겠지. 나는 그게 싫어서 더 싸우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싸움은 내 인생에 자잘하게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그 싸움들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이겨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경찰들도 순순히 내 말들을 잘 들어주었다. 싸울 때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와 함께 귀여운 꼬마가 기도하고 있는 성화다. 싸우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싸움도 무사히~”

아무튼 싸우기는 내게도 편안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 이런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싸우라고 말하고 싶어서다. 부탁이 있다면 시작한 싸움은 이기고,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지혜롭게 마련한 후 싸우는 것이다. 나는 싸우다 불리할 것 같으면 경찰을 부르기도 했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모적인 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사건들을 즐겼고, 나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도 같다.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맞게 적용해보길 바란다. 이것은 꼭 타인과의 싸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도 처절하게 싸우고, 이겨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길 바란다. 싸울 때는 상대가 타인이든 나 자신이든 열심히,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다 물러서거나, 참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되고, 점점 위축될 수 있다. 만약 싸우기가 겁이 나면 상담소에서 하는 ‘자기방어훈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힘 기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싸우기에서는 우선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시작부터 연습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

단상기

‘이건 뭐 너무 쉽구만,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데 용서가 이렇게 쉬워? 챗 상처도 받아보지 않은 저자가 썼나보네, 이거 봐, 신부니까 이런 말 써놓지. 암튼 종교인들은 너무 쉽게 용서에 대해서 말한다니까 재수 없게, 이걸 확 가서 한번 따져봐’

“상처와 용서”라는 책을 읽던 나는 속이 부글거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워낙 상처나 치유, 용서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 읽었다. 그러던 중 당시 대학원 원장신부님이셨던 송봉모 신부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와 용서>였다. 진부해 보이는 제목, 쉽게만 써내려만 상처와 용서를 보면서 이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이상한 독기가 올라왔다. 이런 글은 진짜 깊은 상처를 입어서 용서하기 힘든 나와 같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서관에서 읽던 책을 집어던지고 원장실로 뛰어갔다.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신부님”

“네? 뭐죠?”

“신부님은 상처를 받아보시기는 하고 <상처와 용서>라는 책을 쓰셨나요?”

“아,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이야기 나눌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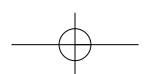
어느 새 내 목소리 톤이 떨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신부님은 상처를 받아보긴 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너무 화가 나서 왔어요.”

“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그리 깊은 상처를 받아보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용서에 대해서도 그리 심각한 용서를 해야 했던 경험은 없어요. 단지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썼어요. 네, 제가 상처나 용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SURVIVORS VOICES

생존자 밀려가기 - 수의 이야기 15화



“저는 아빠란 사람에게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니가 용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님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모든 상처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요. 상처나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서 그 책을 쓴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신이 상처와 용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겸손히 말해버리는 신부님 앞에서 나는 막 따지고 싶었던 기운이 한풀 꺾였다. 책의 저자에게 따지기는 내가 즐기는 습관 중에 하나다. 집에서 나온 이후 상처, 치유, 용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곤 했다. 그럴 때면 책의 빈 공간 곳곳에 빼곡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그 내용들은 이렇다. ‘치, 이건 당신 생각이지,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누가 못하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내 시간에 맞출 거야, 무조건 빨리,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용서하라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일단 미움 때는 미워할 거야……’ 등등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고, 소화해나가는 것이 나의 치유에는 도움이 되었다. 세상 그 누가 말해도 나의 생각, 기준에서 따지고, 또 따져보자.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는 데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 직접 책의 저자를 찾아가 따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나에게도 신선하고,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다. 일단 그 신부님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도 같다.

독하게 욕하고, 처절하게 싸우고, 건방지게 따지는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눌리고, 감춰진 감정들을 표출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길 바란다, 당신의 상처가 잘 익어가도록.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의 방법’들이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치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상처에 대하여

북효근

오래전에 입은 누이의
화상을 아무래도 꽃을 많이 쓴다.
젊은 날 내게 속 쓰리게 살더니
누이의 눈매가 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을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을
꽃의 색깔을 많이 쓴다.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여드름 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많이 쓴다.
오래된 피가 몇몇이 아닌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자에 건
꽃향기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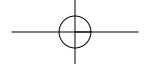
몸, 의미의 불일치 - 말하는 몸

◎ 페미니스트 가수/성문화운동 자문위원 지현

얼마 전 우연히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는 너무나 심각했고, 안전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이가 걸었을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자를 만났을 것을 생각하니, 그 섬뜩함에 이 사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모습

우리는, 언론은, 법은 이 사건을 아동성폭력 사건이라 부릅니다. “아동성폭력”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아동성애자”가 떠오릅니다.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은 아동 성애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고 전제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궁금해졌습니다. 성폭력은 성애로 인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애의 정의에 따라 아동 성폭력을 다시 설명하면 “남성과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 본능에 의한 애육에 의해 저지른 범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적 본능에 의한 애육을 지닌 자이고, 그 본능이라는 것은 때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어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범죄, 성폭력은 때때로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몇몇 남성들의 찌질한 실수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밤중에 건물 3층,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성폭행을 하여도 “취해서 한 실수”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정상 참작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살인 미수의 사건에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범죄의 잔인함을, 그 범죄의 공포를 “성애”의 야릇한 뉘앙스로 가려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야릇함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던 “나영이 사건 진상”의 자세한 이미지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글로 공공의 공간에 재현되었고, 유통되었고, 그것은 마치 스니프 필름처럼 관음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두순을 대신해 나영이와 여성들에게 사과하던 수많은 남성들의 댓글은 그들의 ‘지켜보기’를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술은 마치 객관적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재현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에 주저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이미지들은 마치 전장의 사진들처럼 당시를 증언하는 증거물로서만 여겨졌고, 재현의 윤리나 바라보는 것의 윤리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둘러싼 의미의 불일치 #1



그날 아침 나영이는 학교에 가고 있었겠지요. 내가 나영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을 수업 중에서 음악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었고, 학교를 마치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공부방에 갈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입은 옷은 물려받긴 했지만 세련되고 색깔도 예쁜 옷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내년에는 2학년이 될 것이고, 학교를 마치면 공부방에 가서 친구들과 숙제를 하고, 내 팔에는 복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고, 몸무게는 20키로가 조금 넘고,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지 못했던 무거운 것들도 이제는 잘 들 수 있고, 발은 160mm인데, 오래 오래 신으라고 180mm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머리는 혼자 묶지 못해서 아침마다 엄마가 묶어주고…….

나영이, 아니 나의 몸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야기들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만난 그에게 나영이, 아니 나의 몸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지워진 채, 그저 한 팔로 덤석 들어 데려갈 수 있는, 위협하면 쉽게 말을 듣고,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않을, 말랑하고 체온은 있지만, 힘은 세지 않고, 크기가 작은, 다루기 쉬운 어떤 물건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

나영이, 아니 나는 생명이고 삶인데, 그에게는 폐기 가능한 어떤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불일치가 그 사건을 겪은 나영이, 아니 나에게는 크나 큰 상처로, 상해로, 장애로, 목숨의 위협으로 남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뒤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버려 둔 실수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이라 불리는 그 자는 죄를 뉘우칠 수 없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 형을 마치고 나오면 또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조두순의 범 죄나 윤금이 사건으로 불리는 미군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이 끔찍한 이유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훼손해도 가책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이상한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 아니라 현 사회에 만연해 있는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몸을 둘러싼 의미의 불일치 #2

요즘 텔레비전에 유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유이는 소주 광고를 찍었습니다.

메이킹 필름에서 유이는 그 광고에 출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짧은 바지를 입고, 셔츠를 반쯤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는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합니다.

그 광고를 촬영하면서, 애프터 스쿨이라는 댄스 가

수팀을 하면서 유이는 안무 선생이 지도하는 대로 춤을 잘 추면, 광고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잘 하면, 그러면 대중문화 산업으로 부터 사랑 받고, 가수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이의 허벅지를 강조하는 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몸짓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촬영하는 남자들은 그녀의 의도

와는 관계없이 카메라를 아래에 두고는 유이의 허벅지의 움직임이 가장 육감적으로 보이도록 앵글을 잡아 그녀를 촬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이의 “성공하기”, “인정받기”의 노력은 허벅지에 초점이 맞춰진 관음증적 시선으로 다시 보이게 되고, 그 광고를 본 남성 대중과 언론은 그녀의 허벅지를 꿀벅지라고 부르기에 이릅니다. 물론 언론이 그녀의 허벅지를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은 소속사가 배포한 보도 자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유이는 자신이 피땀 흘려가며 노력한 결과가(춤을 저렇게 잘 추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피땀을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음증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과 옥수수. 거리를 좁히기

성폭력 상담소의 성문화운동 자문위원으로서,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나는 늘 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이 상징계를 언급하며 했던 이야기인데, 스스로를 옥수수로 생각했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옥수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닭에게 먹힐까봐 두려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여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진단하고 퇴원시켰는데, 얼마 후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가 돌아 왔습니다. 의사가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가다가 길에서 닭을 만났다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의사는 당신은 이제 스스로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닭이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폭력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과 여성들을 옥수수로 생각하는 ‘어떤’ 남성들. 옥수수가 되었던 경험을 한 여성들은 닭일지도 모르는 남성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해석의 거

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반성폭력 운동의 결실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과 옥수수, 두 의미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말이 쉽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영이 같은 소녀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삶을 지속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때 가해자를 잘, 효율적으로, 다시 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신에, 어려움에 처한 소녀들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돕는 대신에, 이렇게 너무나 커서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여성이, 남성이, 또 다른 생명들이 서로의 몸에 대해, 서로의 삶, 생명에 대해 각각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런 건지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도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영이가 겪은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ntertainment

몸이여기 - 몸 의미의 불일치

상상력을 담은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공간, 육체, 권력』, 강내희

◎ 소모임 <토닥 스튜디오> 회원 토리



과거 노동자 수기에서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두려움과 희망이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본과 신기술이 집중되는 공간에선 관계나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귀속될 이익이 중요했다. 알아두면 편리할 ‘서울의 문화’들도 낱알이 새롭게 등장하여 도시에 익숙한 몸과 생활방식을 말하는 ‘서울 사람’은 모두가 따르면 좋을 기준이 되어갔다.

여기서 ‘도시’는 마치 무한한 자원을 가진 신대륙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제 사람들은 국경과 바다를 넘어 더 먼 신대륙을 찾아 이동한다. 그러나 그 이동이 신대륙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만큼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간에선 새로운 공간의 문법에 맞추어 이전의 나를 변화시켜야 하며, 정착과 탈락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내야 한다. 한편 하이퍼(?)신대륙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또 다시 그 공간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소비재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서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의 공간의 문화들을 빠르게 조합해가고 있다.

『공간, 육체, 권력』이라는 책은 성인 지식인 남성의 시각에서 본 90년대 초반 서울의 공간적 변화들에 대한 분석 집으로서, 도시-서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 그 공간들의 역사와, 변화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많은 부분 ‘문화’라고 말하는 현상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권력구조와 그 속에 귀속된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의 행동양식으로 바꿔 말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보이지 않던 사회 곳곳의 귀퉁이들을 발견해내게 한다. 이러한 면에서 저자가 말하는 ‘공간의 공개성과 민주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갖게 한다. 우리가 머무르고 움직이는 도시 공간, 특히 ‘거리와 광장’은 분명한 공개성을 지니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공용’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많이 대입되었는가 고민해보는다면, 과연 공개성이 반드시 민주성일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울시청 광장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 곳이 민주성을 띄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우리의 촛불시위가 (정부가 말하는) 도시 문법의 전복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은, ‘문화 집회’라는 - 집회를 둘러싼 일부 사람들의 욕망만을 표현하는 수식어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매년 상담소가 함께 하고 있는 밤길 되찾기 시위는 그러한 면에서 가장 솔직하고 분명하게, 공개적인 공간에 감춰진 비민주적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연대 사회의 언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공간을 쟁취하는 투쟁은 함께 존재했다. 공간의 위치, 성격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하고, 때론 접근하지 않는다. 저자의 말대로 공간과 육체와 권력이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젠더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광장의 사라짐을 보고 있지만(최근 생긴 광화문 광장을 ‘광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 20년 전 서울은 ‘거리’의 사라짐을 목격해야 했다. 사적 용도의 건물들이 거리를 새롭게 구획하였고, 잠재적 광장의 역할을 하던 거리는 법과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문법과 구조를 중시하는 ‘도시’에서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상상이 가능했던 공간들은 끊임없이 성격을 바꾸거나 사라진다. 어떤 이슈이든 ‘공론의 장’의 필요성은 지식적이고 심정적인 연대는 물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보는 물질적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나아갈 것인가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entertainment

소모임 생각 - 상상력을 담은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 『공간, 육체, 권력』

나눔터 66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게이코러스 G-VOICE!

우리 삶을 노래하자,

인터뷰 G-Voice_가람, 기즈배, 이뿐이
기록 마도 | 정리 오매

“이제는 낡은 옷을 떠나 보낼래 새가 되어 자유롭게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요”
“비가 내 마음처럼 흘러내려 태양이 내 마음처럼 뜨거워 파도가 내 마음처럼 사나워”



지난 11월 5일,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 참가자들의 노래가 입가에 맴돈다. 매일 매일 듣고 싶지만 음반도, MP3 파일도 없어서 안타깝다. 모임의 뒷풀이에서, 길거리에서 모두 함께 노래하고 싶다. 노래 모임이 만들어지고 정기공연이 열리고 팬클럽이 생길 수는 없을까? 성폭력생존자의 삶과 마음을 백 가지 색깔의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우리만의 합창단. 그들의 편견에 대해 아름다운 선율로 균열을 내는 노래팀, 이때 떠오르는 모델이 있으니, 바로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소모임, 게이코러스 G-Voice다. 올해로 4회 정기공연을 열고 DIY음반도 2집까지 제작했다. 퀴어문화축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위, 인권콘서트 등에서도 틈틈이 공연하고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팬들도 있는 7년 역사의 코러스 팀. 이번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통해 G-Voice에게 '우리 삶을 노래하는 법'을 배워보자.



G-voice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2003년 12월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소모임으로 출발했어요. 그 해 장충체육관에서 인권콘서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홍석천씨의 커밍아웃, 하리수씨의 데뷔가 있었죠. 두 분만 출연하는 게 썰렁해서 섭외됐는데……, 얼굴을 어떻게 공개해? 가면을 써? 고민하다 결국 그냥 올라갔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노래했던 그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모임을 이끌어온 것 같고요.

'합창'을 하는 게이 코러스팀이 추구하는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합창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2~30년 된 유명한 게이 코러스팀이 많아요. 그런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되겠구나 싶었죠. 처음엔 지루하지 않을까? 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합창문화는 정자세로 고색창연한 느낌이지만, 게이 코러스 문화는 또 다르거든요. 가요, 팝, 트로트, 동요를 크로스 오버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가사를 만들고, 자작곡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멤버 구성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명 정도가 활동 중이에요. 지속하는 멤버가 10명~1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바뀌어요. 정기 오디션은 없고, 수시로 참여의사를 밝히면 간단한 파트 테스트만 거쳐 시작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활동하고 그만두는 멤버들도 있지만 새로운 멤버는 계속 채워지고요.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30대 초중반은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데도 1주일에 꼭 하루는 시간을 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나 친구사이 회원들에게 공연이란 어떤 의미 일까요?

사실, 연습은 하되 공연은 어려운 멤버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야외공연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무대에 서는 것 말고도 작곡, 작사를 한다든지, 공연 때 무대 뒤 스태프를 푼다든지,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긍심은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공연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커밍아웃할 수 있는 좋은 문화적 기반이에요. 무대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친구를 초대해서 커밍아웃하고, 일상 속에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친구사이 열혈회원도 G-voice를 통해 많이 생겨나거든요. 회원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역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공연이 있나요?

:기즈배 첫 번째 공연이었나?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s)를 (게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개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게시판에서 응모를 받았는데, 솔직한 대답들이 날날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위를 겨우 조절해서 가사를 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힘들 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이뿐이 <벽장을 열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노래였어요. 저에게는 애국가 같은 노래랄까?(웃음) 학교에서는 왜 끊임없이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사무실에서 힘들 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어요.
:가람 G-Voice 단원이 모두 이야기하는 건데, 1회 공연은 조그만 카페 같은 공연장에서 했거든요. 정말 소규모였는데 의외로 꽤 찬 거예요. 그땐 악보도 잘 모르고

노래 배우는 속도도 너무 느려서 힘들게 공연 했는데, 처음 공연하고 많은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고. 뒷풀이 하고 나왔는데 함박눈이 진짜 펑펑 내렸어요. 종로를 막 돌아다니면서 “오~ 종로3가~”(〈오 상제리제(Aux Champs-Elyses)〉의 개사)를 부르며 사무실까지 눈 쌓인 길을 걸어온 그날 밤, 그때의 충만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했다는 충만감이 컸던 것 같아요.

G-voice는 무엇을 꿈꾸나요?

카네기홀 공연?(웃음) 게이 뮤직, 게이코러스가 하나의 대중문화가 되고, 그 안에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게이코러스가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게이 커뮤니티는 솔로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 자체를 드러내며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지역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여건 상 공연장 대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금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점차 경제적인 면이나 인력 풀 등 하나의 독립체로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문 공연팀도 아니고 인권단체도 아니지만, 공동체적인 성격을 표방하면서도 사회적인 발언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G-voice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 쉽지 않은 게 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친구가 되고, 자긍심을 서로 높이며,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가는 모임이었다. 성폭력생존자들의 자긍심과 삶을 꽃피우는 노래 모임,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눈 쌓인 밤길을 쏘다니고 싶다. 아, 우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는 멀리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멀리 날아가리”

- 김광석, <나의 노래> 中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



똥다!

가해 상담소 성폭력반결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상담보고 2009년 1월~9월
총 1,640회 / 총 1,089건 (성폭력 : 1,481회 / 938건)
전체 총 1,640회 중 전화 1,320회 / 면접 259회 / 온라인 53회 / 기타 8회

9.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구,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국회 정책 간담회
우리 상담소 외 몇몇 여성단체는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 보좌관 중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구,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실택 생활인, 종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태로 집적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9.11 신규회원환영회
9월 11일 신나고 즐거웠던 신규회원환영회! 총 18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상담소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회원, 활동가 할 것 없이 서로 사귀기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9.18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장관은 여성부처를 후퇴시킬 것이라 우려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청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여성을 편히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 등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9.23/11.15 이사회
하반기 이사회에서는 2009년 이사회의 핵심 슬로건인 모금과 회원배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 내년 사업계획의 큰 쟁점 등 상담소의 핵심 고민을 속 깊게 토론했습니다. 2009년은 이사회의 역할과 활약에 대한 여러 고민과 시도가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9.30 반차별 공동행동 2009 상상더하기 Returns, 첫 번째 이야기 "성스러운 하루"
이번 상상더하기는 토론회 형식을 벗어나서, 상황극을 통해서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떤 식의 성적 터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성적 터부가 취향, 도덕, 사회통념, 과학적 지식 등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차별로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11.5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
6일 상상마당 라이브 홀에서 열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생존자들이 노래, 말하기, 연극, 영상, 즉흥춤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치유의 힘과 용기를 주고받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11.6~7 상근자 MT
상근활동가 MT "일중독을 넘어, 가짜 친목도모로"를 다녀왔습니다. 정경자 자문위원님의 특별 비움/장소 후원으로 멋진 포도농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 맛있는 바베큐를 나누었습니다.

11.12 2009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 워크숍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가 참석한 정책 워크숍에서는 "여성운동, 새로운 의제와 운동방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도 여성인권운동의 새로운 의제에 관한 발제준비 과정에서 함께하며 여성인권운동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20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장, 여성부 장관 오찬
우리 상담소를 포함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장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과 오찬 자리를 가지고,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 문제, 여성가족부로의 전환 계획, 내년부터 시작되는 성인지예산 제도 추진력, 낙태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여성부 업무의 기본 방향과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과제에 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OO 어린이 성폭력 사건 대응 활동
10/10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낮추어주는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에 반대하며 음주감경배제 서명운동 시작
10/17 조OO 어린이 성폭력 사건 거리 행동의 날 진행
10/26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서 및 서명 제출(1차) 기자회견 개최
11/18 2차 서명 제출 (*총 19,19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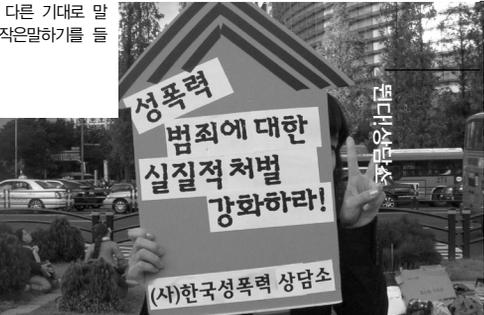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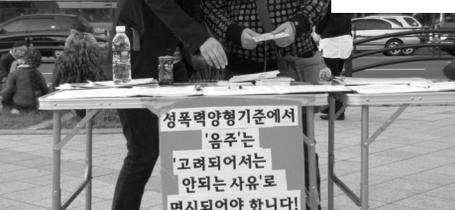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잊혀져가는 장지연 씨의 죽음과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기리며 씩씩함을 진행하고 기금마련을 위해 박재동 화백의 판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1/4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동행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진도씻김굿보존회 씻김굿)
11/2~7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이미지 (박재동 판화전), 갤러리 ZEN XENO

8.23~10.25 2009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약 두 달 간 진행된 자기방어훈련이 10월 25일 대망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10주 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자기방어자'로 거듭나신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26~11.21 춤세라피
같이 땀 흘리며 웃고 울고 하며 자신의 몸을 통해 나와 더 가까워지는 춤세라피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가지만 일상에서도 늘 나와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길 기대합니다.

11.13~15 꿈세라피
나는 누구이며 진정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여성들이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닌 진짜 나의 꿈을 찾아 나섰습니다. 2박3일 동안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나를 만나는 과정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빛을 보았고, 많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작은말하기
2009년 한해의 마무리를 향한 작은말하기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겁고, 두렵기만 해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웃음으로, 지자로, 또 다른 기대로 말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다면, 작은말하기를 들려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9/30, 10/28, 11/25 @ 카페 사이애



I'm Survive.i.n.g

dooing 사이트, 그곳엔 흥미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어느 날 상담소는 재정자문위원님을 통해 dooing이라는 사이트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dooing이란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모임체입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란 티셔츠 디자인에 담고 싶은 주제를 비영리단체가 dooing에 올리면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공모,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디자인을 실제 티셔츠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공모주제를 올린 비영리단체에게 기부되는 것이지요.

신선한 기부방식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 다음이 문제. "티셔츠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대회, 말하기, 말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라는 수많은 고민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듣기와 공감. 하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과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공감, 응원한다는 것 사이에 혹시나 이질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 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하나가 되어 함께 목소리를 내보자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임 안에서 누군가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소수자라고 말하게 되고, 이러한 '말하기'가 퍼지고 퍼져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기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티셔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 10월 19일, 드디어 '말하기'라는 공모주제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지나자 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인이 올라오기 시작, 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기획의도에 활동가 오매는 "우와, 감동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다니!"라며 감탄하였고, 속속 올라오는 디자인을 보며 흐뭇한 감정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 디자인 중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I am survive.i.n.g'라는 강렬한 문구, 은은한 색감, 입 속에 가득 찬 말하기의 에너지, 전율을 담은 디자인은 너무나 신선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도, 말하는 순간에도, 말한 이후에도 생존하고 있다. 말하는 순간, 그녀는 이야기한다. 나는 '생존해있다'고.. 나는 말하는 그 순간 입에서 쏟아져나오는 내면의 에너지와 전율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디자이너의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는지 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말하기' 티셔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I am survive.i.n.g' 티셔츠는 11월 5일에 열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 16장 판매를 기록, 앞으로도 dooin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티셔츠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말하기'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입 부탁드립니다! dooing 홈페이지 _ www.dooing.net

그녀들의 무모한 도전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참가자 나랑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

그 쓰기 워크샵에서 처음 만난 우리. 처음 한 달 동안 그녀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고 그녀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집중했지. 그녀들의 주관적 진실을 믿어주기.

난 몸 워크샵이 참 좋았어. 끝나고 나면 멍치고 굳어있었던 목과 어깨도 사르르 풀려 있더라구. 고통을 견디느라, 세상과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늘 경직되어 있었던 몸이 이완되면서, 내 몸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걸 느꼈지. 또 '표현한다'는 것의 자유로움과 해방감, 그 '맛'을 처음 알고 빠져들게 되었다고 할까? 서로 마사지 해 주고 함께 춤추면서, 그리고 그날의 기분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우린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한 친구와 파트너가 되어 눈 감고 춤을 췄을 때, 그녀의 깔깔대는 천진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네.

그 래,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내내 느꼈던 기분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에 눈뜬. 내가 우울하다고 했더니 모두 달려들어서 마사지를 해 주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니?"

내 가 쓴 가사로 노래가 만들어지고, 내가 제목을 붙이고 나의 감정대로 불렀지. 내가 말한 키워드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협동으로 연극이 만들어졌지.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사르르 도는 걸 느꼈어. 그렇게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었던 건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신뢰감과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연 습하는 내내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었지. 배가 아프고 광대뼈가 저릴 정도로 깔깔대며 웃고 뒤집어지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심 없이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막 판에 연습이 뻑뻑하게 돌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문득 문득 나를 덮치곤 했어. 일주일에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생존자'로서의 나와 대면해야 하는 것이 쉽지않은 많은 작업이었나 봐. 생존자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지겹다는 생각. 이산이 말한 것처럼 이건 좋은 징조일까?

말 하기대회 당일, 나의 불안증상 응가를 한번 해 주고, 막상 무대에 섰을 때 무진장 떨리긴 했지만 그다지 불편하진 않았어. 노래할 때, 또 말할 때 나의 감정과 눈물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아. 그냥 나 자신에게 충실했지.

내 말하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노래를 할 친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땀 오매가 오랜 시간 포옹을 해 주었지. 수천마디의 말보다 더 깊고 따뜻한 위로와 지지. 그동안의 애씀, 부대낌, 설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

그 나저나 어쩔 그렇게 실수도 안 하고 다들 멋지게 잘 해낼 수가 있니? 양극한 것들. 우리가 결국 해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성 폭력 경험 이후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새삼 느끼고 있어. 숨죽이고 웅크리고 경직되고 경계하고 무표정하고..... 하지만 말하기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유쾌하게 웃고, 나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했던 그 시간들로 이제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말 하기대회는 나의 애도 과정,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유쾌하고 즐거웠던 작업으로 기억될 거야. 나와 함께 해 준 여러분, 참 고마워요.



[회원 인터뷰]

♥ 정진욱 회원님

정진욱 회원님의 딸 희나가 백일을 맞았습니다. 11월 11일 사무실에 기념 나눔떡이 도착하여 상근활동가들이 신나게 축하를 나눌 수 있었지요. 결혼식에서도 열림터 후원 모금을 해주셨던 정진욱 회원님! “희나가 성별이나 성정체성, 국적,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상담소는 너무 중요한 친구가 될 거예요” 최연소 자원활동가로 예약되신 희나, 그녀에게 축복을!



♥ 여름 회원님

여름 회원님이 엄마 또래 50대 여성을 위한 레드다이 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JAGI출판사를 창업하여 멋진 첫 작품을 출간하신 것! 5월 ‘징글징글한 인간들’ 코너는 벌써 대박예감이네요. “엄마에게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며 만들었어요. 내 또래들이 엄마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http://cafe.daum.net/cccjagi>에서 마음에 스피는 소감도 나누고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훈훈한 기부]

♥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정환, 김지현, 권김현영, 명가진, 김혜영, 고정남, 김승구, 노선이, 조은정, 윤지희, 홍보연, 하은주, 방상희, 서영주, 박정란, 김지혜, 신동현, 신상호, 노복미, 주희진, 이계형, 장윤경, 강유인화(수하), 박윤숙, 신동훈, 최경식, 최미숙, 전병희 회원님이 회비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소 회비 up! 활동 up!>에 동참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비를 증액하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10월 7일, 가수 윤도현님께서 쇼케이스와 함께 ‘성폭력피해 어린이 재활기금 마련 스타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우리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바자회의 수익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Seoul Writers Workshop에서 파티 복권 수익금 175,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파티 복권 수익금을 기부해 주시는 Seoul Writers Workshop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 상담활동가 조은희님께서 상담소 식구들의 영양 반찬인 김한 박스를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 활동도 하시면서 자상하게 활동가들의 식사도 신경써주시는 조은희님, 고맙습니다!

♥ 황수용님께서 고추, 상추, 옥수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스 안 고이고이 쌓아 정을 듬뿍 담아 주신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건강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 김하나 회원님께서 이번에도 핫초코, 커피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다 과자까지 추가로 센스있게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시는 김하나 회원님의 마음은 천사!

♥ 황인관 회원님께서 어느 날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모든 활동가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거기다 상담소 회원배가 운동에 열심히 동참까지 해주신 황인관 회원님! 여러모로 관심을 쏟아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연정 회원님께서 어느 날 상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전기 밥솥, 포도, 포도주스와 함께 즐겨보셨다는 귀한 책들까지 기부해주시던 그 모습, 기억하겠습니다. 활동가에서 든든한 회원으로 돌아가신 김연정 회원님, 고맙습니다!